

《墨子哲學》 방법론 小考

張 閏 洙

目 次	次
I. 《墨子哲學》과 《墨家哲學》	IV. 兼愛・非功의 슬로건과 그 문제의식
II. 「墨子」書의 구성	V. 兼愛拒利・非功拒利와 ‘尚賢’思想
III. 墨子시대의 사회적 배경	VI. 《墨子哲學》어떻게 할 것인가?

I. 《墨子哲學》과 《墨家哲學》

우리는 철학을 말할 때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命名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파의 이름을 붙이는 수도 있다. 후자에 있어서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소속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집적하여 점차 완전한 하나의 체계를 갖추어 간다. 그러나 전자에 있어서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사상재료가 충분히 활용은 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素材로서 이용될 뿐이다. 즉 이들 소재가 개인의 개성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체계로 조직화되어서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독자적인 위치와 가치를 가진다.¹⁾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자를 《묵자철학》이라 하고, 후자를 《묵가철학》으로 하여 구분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묵가철학》이 아니라 《묵자철학》이다. 즉 ‘묵자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當代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어떤 것을 그 사상의 본질로 삼았는가’ 하는 점이 바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해명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묵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문헌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즉 현존하는 「묵자」 53편 모두를 묵자 본인의 사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53편 중 일부분만을 묵자사상으로 간주할 것인가? 만약 그 중 일부분만을 묵자 본인의 사상으로 간주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또한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외에도 또한 ‘묵자 본인의 사상연구를 위한 재료를 채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정리하여 그 중에서 묵자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추출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이들 문제에 대한 개략적 소묘를 해 보도록 한다.

1) 하기락, ‘서화담의 氣 철학’ (고병간박사교회기념논문집), p. 1.

II. 「墨子」書의 구성

결론적으로 말하여, 현존하는 「묵자」 53편 가운데 묵자의 친필로 추정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²⁾ 그는 자신의 사상·감정·행동에 관해서 아무 것도 남긴 것이 없다. 다만 그를 따르던 제자들(묵가학파)이 약 2세기간(B.C. 5C 후반~B.C. 221년, 秦제국 천하통일까지가 전성기임)에 걸쳐 開祖 묵자에게 관심을 집중, 그의 언론·대화·행동 등에 관해서 많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정리하여 「묵자」라는 원전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묵자철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준다.³⁾

우리는 먼저 「묵자」諸篇에 대한 원전비판을 해야겠다. 그것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한 걸같이 개조 묵자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실은 묵가 운동 소역사의 자료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實在로서의 묵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로, 묵가 중 후대에 성립된 묵자사상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尚同, 天志, 兼愛交利를 주장하는 묵자像은 역사적 실재로부터 훨씬 거리가 먼 형상으로 거의 허상에 가깝다.⁴⁾(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詳論치 않겠다.) 둘째로, 정말 찾아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초기의 모습,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중기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선택 대상의 범위는 좁혀질지라도 ‘묵자’라는 역사적 실재에는 훨씬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째로, 그렇게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그 묵자像은 묵가운동의 기점에 위치하면서 그 운동에 충격을 준 것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묵자」書의 구성을 살펴 보도록 하자.⁵⁾

제 1 류	親士, 修身, 所染, 法儀, 七患, 辭過, 三辨 : (7편)
제 2 류	尚賢(上·中·下), 尚同(上·中·下), 兼愛(上·中·下), 非功(上·中·下), 節用(上·中), 節葬(下), 天志(上·中·下), 明鬼(下), 非樂(上), 非命(上·中·下) : (10론 23편)
제 4 류	耕柱, 貴義, 公孟, 魯問, 公輸, 非儒(下) : (6편)
제 5 류	備城門, 備高臨, 備梯, 備水, 備突, 備穴, 備蛾傳, 迎敵祠, 旗幟, 號令, 雜守 : (11편)

2) 宇野精一(外), 「(講座)東洋思想」(제 4 권 : 中國思想 Ⅲ), 東京大 出版部, 1967. 3.20 초판, 「墨子と三墨」(p.57).

3) 上同.

4) 上同.

5) 전계서, 「(墨家思想)本質」(p.4).

제 1 류는 묵가의 잡론집이다. 제 2 류는 「묵자」書의 핵심 부분으로서, 원래는 10론 30편이었으나 현존판에는 23편으로 줄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론이란 묵가학파의 가장 중요한 ‘10대 슬로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10론 23편은 거의 모두가 開祖 묵자의 말이라고 하지만, 실은 묵가의 초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주장의 변천이나 분파에 따른 사상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묵가사상을 알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근본문헌이거니와,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순서로 저작된 듯하다.

10론 23편의 저작연대⁶⁾

초	기	중	기	말	기
B.C. 450	400	380	350	300	250 220
1	兼愛(上)	(中)	(下)		
2	非功(上)	(中)	(下)		
3	尚賢(上)			(下)	(中)
4		節用(上)	(中)		
5					節葬(下)
6					非樂(上)
7			尚同(上)	(下)	(中)
8			天志(上)	(下)	(中)
9					非命(上)(中)(下)
10					明鬼(下)

제 3 류는 묵가의 논리에 관한 저작이다. 經은 그들이 사용하던 述語의 개념을 간결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상편은 약 98語, 하편은 약 81語, 도합 약 179語를 수록하고 있다. 經說은 문자 그대로 經에 대한 설명이다. 經에 비하면 약간 長文의 설명으로 되어 있으며, 수록된 술어의 수는 經의 그것에 대응하여 거의 같은 수이다. 내용은 논리·윤리·경제·정치 등 각 방면에 걸쳐 있다. 제 4 류는 開祖 묵자의 설화집이다. 耕柱 21, 貴義 19, 公孟·魯問은 각각 23, 公輸 1, 합계 87개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다. 생생한 史實은 드물고 설화화된 것들이 많다. 그 중에는 모두 後學이 擬作한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묵가의 집단적 성격이나 학풍을 추측하는 자료로서는 모두가 귀중한 것들이다. 제 5 류는 兵技巧에 관한 묵자와 禽子(禽滑釐)와의 대화이다. 兵技巧란 단순한 전술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병기·기구·설비·자재의 제작이나 취급법까지도 의미한다.

「묵자」 53편은 대체적으로 이상과 같이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구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제 2 류’가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이것은 바로 묵가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원천이며, 이것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묵자 본인의 사상’을 어느 정도 원

6) 전제서, ‘(墨家思想)本質’(p.4); 이 부분에서 논자의 생각대로 몇 군데를 수정하였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詳論치 않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본고의 주제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당시 목자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서 핵심적인 사상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Ⅲ. 목자시대의 사회적 배경(춘추시대 말기~戰國시대 초기)

목자의 이름은 瞿으로 대략 기원전 5세기 전반에 태어나 기원전 4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⁷⁾ 그의 활동은 주로 전국시대 초기에 해당된다. 태어난 나라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중기 목가의 설명에 따라 宋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듯하다.⁸⁾

송나라 도읍인 商邱는 이름에서 보듯이 예전부터 商(殷)族에 의해 만들어진 도읍이다. 殷이 멸망한 뒤 周나라 왕실은 殷의 왕족인 微子와 그 일족을 商邱에 봉하고 주변의 토지를 주어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들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주나라 문화에 거의 동화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고대의 풍속·관습을 고집하여 전통성을 고수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오랜 왕국의 자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주나라 문화의 비판자가 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목자를 비롯한 목가의 사상 가운데는 殷 또는 宋의 제도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요소가 혼입되어 있다. 더구나 목자는 스스로를 賤人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⁹⁾ 일찍이 수레를 만드는 工匠계층 출신이었다고 한다.¹⁰⁾ 당시의 工人은 士·農·工·商이라는 속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상인과 더불어 농민보다도 하층에 속하였다. 그들은 상당한 기술수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와 주체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은 채 혼히는 官府와 귀족에게 예속되어 성읍의 한 모퉁이에 거주지를 지정받아 일족 전부가 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工匠은 工人族의 長으로서 그들을 통솔함과 동시에 감독관료의 명령을 받아 주로 지배계급의 소비에 봉사하였었다. 따라서 공인계층의 저류에는 가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이 항상 깔려 있어 때때로 폭발하곤 하였다.¹¹⁾

춘추시대 말기 제후들 사이에 항쟁, 會盟은 점차 격화되어 갔다. 더구나 미개족이라고 경시당하던 吳·越 등의 신흥국이 중원의 항쟁에 개입하여 주도권을 탈취하는 일도 있어 동란은 점차 확대되었고 시대는 戰國이라 불리기에 어울리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

7) 여기에 대해서 중국 대륙계열 학자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목자는 약 기원전 480년(周 敬王 40년)에 태어나 기원전 420년(周 威烈王 6년)에 죽음’(任繼愈 主編, 「中國哲學史」(제1권), 北京 1978(재판); 제2장, 註 1) 참조).

8) 金谷治(外), 「중국사상사」(조성을 譯), 서울: 이론과 실천사, 1986(p. 51~57 참조; 이것 또한 와파나베 교수의 글을 번역한 것임).

9) 이 말은 「목자」(貴義篇)에 나오고 있다. 목자가 楚나라 惠王을 만나서 책을 바치려 하자, 왕이 늙음을 이유로 사양하며, 신하인 穆賀로 하여금 대신 목자를 만나게 하였다. 목자와 목자가 서로 대화하는 중에 목자의 출신(지위)이 아주 賤하다는 구절이 몇번이나 언급된다. 위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故事를 말하고 있다.

10)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史」(제1권), 北京, 1978(재판); 제2장, 제1절(목자와 그의 학파) 참조.

11) 金谷治(外), 「중국사상사」(조성을 譯), p. 51~57 참조.

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이행하는 시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지금은 이것을 기원전 453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 해 北西의 대국인晋나라의 실권을 장악하였던 卿大夫인 知伯이 세 사람의 동료에 의해 살해되어晋나라 지역이 3분되었다. 이 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趙・魏・韓이며, 후에 번영하여 모두 강국이 된다.¹²⁾

이러한 동란의 격화・확대는 城邑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미 춘추시기부터 齊・晋・楚・越 등의 강국은 주위의 약소국을 합병시킴으로써 팽창하고 있었는데, 전국시기가 되면서 ‘약육강식’의 대세는 현저히 속도를 더해 간다. 이러한 경향은 제후 사이만이 아니라 정대부들 사이의 공방전에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났다. 또 그 위에 기강이 이완된 틈을 타고 도적이 횡행하였다. 그 때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농민이었다. 작물은 베어지고 나무는 벌목되었으며 성벽은 파괴되고 연못은 메워졌다. 가축은 도난당하고 저항하는 자는 모두 참살되었으며 무저항자도 열주처럼 켜어져 침략자의 음에 끌려가 남녀 모두 노예로서 중노동을 강요당하였다.¹³⁾

한편 사회 일반에 확대된 爭鬪을 일삼는 풍조는 가족 사이에도 파급되어 父子・형제 등의 사이에 의롭지 못한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사상가로서 목자가 목도하였던 것은 바로 이렇게 분열・항쟁하던 혼란한 사회였다.¹⁴⁾

Ⅳ. 兼愛・非功의 슬로건과 그 문제의식

우리는 이미 앞에서 목자 사상의 핵심이 「목자」 53편 가운데서도 ‘10론 23편’ 속에 모아졌음을 살펴 보았다. 그렇지만 인용한 도표에서도 보았듯이 ‘10론 23편’ 모두를 목자 본인의 사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목자」 53편 가운데서 목자 본인이 직접 저술한 저작은 단 한 편도 없음은 앞서 언급한 바이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초기의 저작에는 개조 목자의 생각과 주장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원래의 모습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10론 23편’만을 한정해 보기로 하자. ‘10론’ 중에서도 전기・중기・후기의 저작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저작 : 兼愛(上), 非功(上), (尚賢)(上)
2. 중기저작 : (尚賢)(上), 節用(上)
3. 후기저작 : 節葬, 非樂, 尚同, 天志, 非命, 明鬼

위 표를 보면, 일단 節用의 주제(중기사상)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귀신을 강조하는 주제(후기사상)는 원래의 목자사상과는 멀어진다 하겠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를 언급할 수

12) 上同.

13) 上同.

14) 上同.

있겠으나, 여기서는 지면상의 문제와,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전문적인 고증학적 문제가 될 것임으로 인하여 그 상세한 논증은 생략하고 다만 몇가지 例단을 들도록 한다.

우선 우리는 交利를 주장하느냐, 拒利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묵자 본인의 사상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묵가학과 초기의 사상, 즉 묵자 본인의 사상에서는 어디까지나 利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다. 그렇지만 중기 이후의 묵가학파에 있어선 ‘서로에게 이익될 것’(交利)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秦제국의 통일 무렵과 함께 등장하게 된 事大의식, 尚同사상, 귀신존중의식 등은 모두 후기적 주제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楚나라를 荊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최소한 秦제국 등장 이후, 즉 후기의 저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秦나라 始皇의 아버지인 莊襄王의 字가 子楚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당시 저술들은 모두 楚라는 이름 대신에 荊을 사용하고 있음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人面鳥身’ 같은 구절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이 고증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人面鳥身이란 秦나라 시대의 민속에서 나타나는 설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구사하고 있는 「묵자」 각 편 역시 최소한 秦나라 이후의 저작일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 이외에도 節用의 테마에 속할 수 있는 주제(節用・節葬・非樂 등)들 또한 순수한 묵자 본인의 사상으로 보기에는 힘든 중기 혹은 후기적 주제로 분류하여야겠다. 節用이라는 테마 자체가 工人집단이었던 묵가학파에게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非功과 兼愛의 논리와 결합해서 등장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들로 인하여 節用의 주제를 가진 편은 중기 묵가의 부류로 묶어 두고, 통일성(尚同)과 하늘, 귀신에 대한 주제를 가진 편은 후기 묵가의 부류로 묶어 두기로 한다.

그렇다면 전기 묵가의 저작으로 묶은 兼愛와 非功, 심지어 중기초의 묵가 저작인 尚賢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묵자의 사상을 수록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도표에서도 짐작하겠지만 兼愛・非功・尚賢 세 편 중에서도 각각의 上篇만이 묵자 자신의 사상에 가까울 뿐이고, 中・下篇은 거개가 묵자시대와는 상관없는 후기의 擬作일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고증 또한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兼愛・非功・尚賢 각각의 상편만이 묵자 본인의 사상에 근접하는 것이라 전제해 두고서 이하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¹⁵⁾

묵자는 우선 兼愛를 주장한다. 그 대략적인 것은 兼愛 상편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는 대책의 수립에는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그는 세계의 동란이 인륜의 분열에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이 相愛의 결여에 있다고 단정한다. 예를 들어 父子・형제・君臣간의 분쟁은 모든 인간 각자가 자기이익만을 고집하며 相愛를 결여

15) 兼愛와 非功의 中・下篇에선 交利를 주장하며, 楚를 荊이라고도 표기하고 尚同, 事大, 尚鬼, 節用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兼愛中・下, 非功中・下篇은 분명 묵자의 본인의 사상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도적의 횡행, 大夫 사이의 권력투쟁, 제후 사이의 전쟁도 모두 같은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분열과 분쟁을 없애고 천하를 平治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이익을 부정하고 ‘남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성인이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을 알아야만 이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면 끝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일찍이 살펴 보건대 혼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서 일어난다. 신하와 자식이 그의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자식은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를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우는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형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신하는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임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혼란인 것이다. ……만약 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아울러 서로 사랑하게 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그의 몸을 사랑하듯 한다면, 그래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가 있겠는가? 父兄이나 임금 보기를 그 자신과 같이 한다면 어찌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겠는가? 그런데도 자애롭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아우와 자식과 신하들 보기를 그 자신과 같이 한다면 어찌 자애롭지 않게 행동하겠는가? 그러므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나 자애롭지 않음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¹⁶⁾

이상과 같이 묵자에게는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지향하는 문제의식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 방법은 그의 뒤를 잇는 묵가들에 의해 더욱 진전되지만, 초기에는 아직 소박한 사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기 이익의 부정과 兼愛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兼愛上篇은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윤리가 貫賤・尊卑를 엄격히 구분하고 강자의 측에 서서 약자에게 험거운 책무를 강요하였던 사실에 주의한다면 父子・형제・군신 쌍방에게 相愛를 권하였다는 점이 이미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류의 雙務性을 소리높여 선언한 것이다. 더구나 이 공평한 배려는 當代 윤리학과 비교한다면 실은 弱者支持의 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묵자가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거의 주장하지 않는 사실도 이 정신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兼愛의 구호와 약자 지지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인류의 雙務性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자연히 약육강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2의 구호’(非功)를 독립시키는 것이 되었다.

非功의 구호는 강자의 침략전쟁에 대해 정면으로 비난을 퍼붓는 동시에 침략전쟁의 정당화를 피하는 군자가 만들어 낸 여론에 대해 엄중 항의하였다. 그 대략적인 것은 非功上篇에 의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절도범을 비유로 들어, 절도품의 값이 비싸면 비

16) 聖人, 以治天下爲事者也. 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不知亂之所自起, 則不能治. ……當察亂何自起? 起不相愛. 臣子之不孝君父, 所謂亂也. 子自愛不愛父, 故虧父而自利. 弟自愛不愛兄, 故虧兄而自利. 臣自愛不愛君, 故虧君而自利. 此所謂亂也. ……若使天下兼相愛, 愛人若愛其身, 猶有不孝者乎? 視父兄與君, 若其身, 惡施不孝? 猶有不慈者乎? 視弟子與臣, 若其身, 惡施不慈? 故不孝不慈, 亡有. ……

쌀수록 범인의 심정은 그만큼 더 不仁하여 그의 행위는 不義하다고 하고, 절도가 드디어 강도·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악이라고 단정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인이 타인을 침해하여 자기이익을 허락하는 정도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면 군자는 그것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세상의 군자들은 절도와 강도, 살인죄를 몇 백배 이상으로 흉악하게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하여는 어떤 일인지 도리어 정의의 전쟁이라고 칭송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기도 한다. 이것은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교묘히 속이는 속임수이며, 정의와 불의의 감별을 의식적으로 혼란시키는 것이다.

지금 한 사람이 있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그곳의 복숭아나 오얏을 훔치면 여러 사람들은 듣고서 그것을 비난하고, 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를 잡으면 처벌을 할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남을 행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닭이나 돼지를 훔친 자는 그 不義가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나 오얏을 훔친 것보다 더욱 심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남을 해친 게 더욱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해친 게 더욱 많을수록 그의 不仁함도 더욱 심해지고 그의 죄도 더욱 많아진다. ……이와 같은 일은 천하의 군자들은 모두 알고서 그것을 비난하며 不義라고 말한다. 지금 크게 不義를 위하여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곧 비난할 줄도 모르고 이를 좇아 칭송을 하면서 의로움이라 말한다. 이것을 義와 不義의 분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 이것은 진실로 그의 不義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적어서 후세에 전하기까지 한다. 만약 그의 不義를 알았다면 도대체 무슨 말로 그의 不義를 적어 후세에 전하겠는가?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검은 것을 조금 보고는 검다고 말하다가 검은 것을 많이 보고는 희다고 말한다면 곧 이 사람은 흰 것과 검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조그만 그릇된 짓을 하면 곧 그것을 알고서 비난하다가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커다란 그릇된 짓은 곧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칭송하면서 그를 따르며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써 천하의 군자들이 義와 不義의 분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겠다.¹⁷⁾

여기에서 그 논지의 소박성과는 달리,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지배계급의 여론조작의 계락을 폭로하는 최현배적 의의를 갖는 부분도 있다.¹⁸⁾

V. 兼愛拒利·非功拒利와 ‘尚賢’思想

묵자의 ‘두 가지 구호’(兼愛·非功)는 이상과 같이 타인을 침해하여 자기이익을 꾀하는 태도를 세계의 분열로 간주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거기에서의 利는 相愛나 仁,

17) 今有一人, 入人園圃, 竊其桃李, 衆聞則非之, 上爲政者得則罰之, 此何也? 以虧人自利也. 至攘人犬豕鵝豚者, 其不義又甚入人園圃竊桃李, 是何故也? 以虧人愈多. 苟虧人愈多, 其不仁慈甚, 罪益厚. ……當此, 天下之君子, 皆知而非之, 謂之不義. 今至大爲不義攻國, 則弗知非, 從而譽之, 謂之義. 此可謂知義與不義之別乎? ……情不知其不義也. 故書其言, 以遺後世, 若知其不義也, 夫奚說書其不義, 以遺後世哉? 今有人於此, 少見黑曰黑, 多見黑曰白, 則以此人不知白黑之辯矣. ……今小爲非, 則知而非之, 大爲非攻國, 則不知非, 從而譽之, 謂之義. ……是以知天下之君子也, 辯義與不義之亂也.

18) 金谷治(外), 『중국사상사』(조성을 譯), p.51~57 참조.

그리고 義와는 대조적이다. 환언하면 兼愛는 ‘兼愛拒利’이며, 非功은 ‘非功拒利’이다. 이러한 利의 사상은 공자가 ‘利에 따라서 행하면 원망이 많다’([논어] 里仁篇), ‘군자는 義에 밝고 소인은 利에 밝다’(같은 책)라고 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아마도 묵자는 仁·義·利사상을 원시 유가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묵자가 ‘兼愛交利’(兼愛 中·下篇의 입장)를 주장하였다고 하는 속설은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아 역사적 실재로서의 묵자 및 초기 묵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중기 묵가가 형상화한 묵자像에 미혹되어 생겨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¹⁹⁾ 생각컨대 묵자는 원시유가의 사상을 뒤집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사랑하는 雙務의 세계를 제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때문에 약자를 지지하여 당대의 강자계층의 계략에 두드러진 불신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의도는 없었던 듯하다.

兼愛와 非功 이외에 묵자가 어떤 사상을 신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추측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것이다. 다만 묵자가 兼愛·非功의 구호를 제창하여 楚·齊·魯·衛·魯陽 등 여러 곳의 군주를 편력하였다는 것은 史實로서 인정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현자를 숭상하여야 한다는 尚賢을 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존의 尚賢 上篇은 구래의 요소와 더불어 戰國末 무렵에 가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묵자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핵심사상은 확실히 그의 兼愛論으로부터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군주에게 관리를 채용할 때 친근함과 소원함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특히 인습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토착관리와 公族의 次男이하, 성읍안팎의 서민과 노예 등 정치상의 약자에게도 재능에 따라 관리등용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그 논리로서 옛 성왕은 농민, 工人 등의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현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임금이나 대신들 같은 국가의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가 富해지고 백성이 많아지고 법과 행정이 잘 다스려지기 바란다. 그러나 富하지 못하고 가난하며 많지 못하고 적으며 다스려지지 않는 고 어지리워지는 게 보통이니, 곧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바라는 일은 실패하고 그가 싫어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능력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도록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을 많게 하는 술법이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 …… 이런 사람들은 본시부터 나라의 보배요 社稷의 보필자인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그들을 공경하고 영예롭게 해주어야만, 나라의 훌륭한 선비들이 또한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왕들이 정치를 할 적에는 덕 있는 사람을 벼슬자리에 앉히고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하였다. 비록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그를 등용하여 그에게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녹봉을 주며 정사를 맡기어 결단하여 명령할 권한을 주었다. ……그러므로 官이 항상 귀한 것이 아니고 民이 항상 천한 것이 아니다. ……뜻을 얻었을 적에는 현명한 선비를 등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니와 뜻을 얻지 못하였을 적에도 현명한 선비는 등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요·순·우·탕 같은 聖君들의 도를 받들어 따르려 한다면 반드시 현명한

19) 전게서(pp.51~57 참조)

사람을 숭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다. 무릇 현명한 사람을 숭상한다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일이다.²⁰⁾

요컨대 尚賢 上篇은 ‘富이 항상 귀한 것이 아니고 民이 항상 賤한 것이 아니다’라고 민중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중국 고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사상이다.

Ⅶ. 《墨子哲學》 어떻게 할 것인가?

진 역사 속에서 망각 또는 이단시되어 온 묵자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보려는 경향은 주로 淸代말기 이후에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묵가의 사상은 王夫之(1619~1692)의 「讀通鑑論」이나 黃宗羲(1610~1695)의 「明夷待訪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묵가사상은 淸末의 혁신운동이 격화되는 가운데 개몽사상가, 예컨대 譚嗣同(1866~1898)이나 梁啓超(1873~1929) 등에게 더욱 선명한 자극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동향과 아울러 청대 중기무렵부터 「묵자」의 문헌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컨대 畢沅(1730~1797), 汪中(1744~1794), 王念孫(1744~1832), 張惠言(1761~1802), 陳澧(1810~1882), 俞樾(1822~1907) 등 역대 고증학자의 업적은 드디어 孫詒讓에 이르러 「墨子閒詁」로 집대성되었다. 이런 기반 위에서 胡適(1891~1962)이나 梁啓超를 비롯한 묵자 및 묵자사상에 대한 근대적 연구가 개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기운을 더욱 촉진시킨 것은 1919년 5·4운동 전후 사상계의 대세였다. 당시 사상계에서는 역대 봉건사회의 정진적 지주였던 유가사상이 진보적 지식인의 비판을 받게 되고, 공자를 배격하고 거꾸로 묵자를 추앙하는 언론이 거센 흐름을 이루었다. 魯迅같은 이가 「非功」(1934)을 써서 항일전쟁 당시의 자기의 심경과 태도를 묵자에게 假託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거센 물결의 여세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연구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묵자 철학》과 《묵가철학》의 구별이다. 民國初 및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한 거의 모든 묵자연구서, 논문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묵가운동은 거의 200년간에 걸쳐 있으니, 그 사이 전기와 후기 사이에 이론적 괴리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즉 개조 묵자가 직접 활동하던 전기시대의 이론과 秦나라가 통일할 당시, 심지어 秦이 통일한 이후까지 존재했던 묵가학파의 이론이 동일

20) 今者, 王公大人爲政於國家者, 皆欲國家之富, 人民之衆, 刑政之治. 然而不得富而得貧, 不得衆而得寡, 不得治而得亂, 則是本失其所欲, 得其所惡, 是其故何也? …… 是…… 不能以尚賢, 事能爲政也. …… 曰, 然則衆賢之術, 將奈何哉? …… 此固國家之珍而社稷之佐也. 亦必且富之貴之, 敬之譽之, 然後國之良士, 亦將可得而衆也. …… 故古者聖王之爲政, 列德而尚賢, 雖在農與工肆之人, 有能則舉之, 高子之爵, 重子之祿, 任之以事, 斷子之命. …… 故官無常貴, 而民無終賤. …… 得意, 賢士不可不舉, 不得意, 賢士不可不舉. 尚欲祖述堯舜禹湯之道, 將不可以不尚賢. 夫尚賢者, 政之本也.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개조 묵자의 사상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후 묵가학과 전반에 뒬뚱히 흐르는 사상적 본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실천으로는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묵자」 53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논자는 본고에서, 현존하는 「묵자」 53편 중 거의 유일하게 묵자 본인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兼愛(上), 非功(上) 두 편을 언급하였으며, 심지어는 증기초의 저작으로 알려진 尚賢(上)篇마저 묵자의 사상을 부분적으로나마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었다. 이 연구의 기본 골격이 대부분 日人 학자와 와타나베 다카시(渡邊卓) 교수의 기존 연구업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논자 자신의 직접적인 「묵자」書 연구를 통하여 동감하고 확증한 바이다. 그리고 큰 줄기에 있어서는 와타나베 교수의 입장에 절대 동감하는 바이나, 세부적으로 볼 때 논자의 입장이 약간 달라진다.²¹⁾ 각 편을 정독하면서 논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조금씩 수정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틈 나는대로 앞서의 논의들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논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그 귀결점에 대한 시론만을 펼쳐 보였다.

參 考 文 獻

◦ 기본 텍스트

孫詒讓, 「墨子閒詁」, 台北: 鸞聲文物供應公司, 1970. 8.

◦ 보조 텍스트

김학주(역), 「묵자」, 서울: 명문당, 1978.

이원섭(역), 「묵자」, 서울: 경한출판사, 1975. (동양의 명저 9)

本田濟(역), 「墨子」, 東京: 講談社, 1981.

早稻田大學(편), 「墨子上」(漢籍國字解全書 12권), 1911.

◦ 참고서

金谷治(外), 「중국사상사」(조성을 譯), 서울: 이론과 실천, 1986.

任繼愈 主編, 「中國哲學史」(제 1 권), 北京, 1978(제판).

유명중, 「중국사상사 I」, 대구: 이론출판사, 1983.

유명중, 「전통과 창조」, 부산: 동아대 출판부, 1989.

◦ 참고 논문

渡邊卓, 「(墨家思想)本質」.

渡邊卓, 「(墨家思想)歴史的 概観」.

渡邊卓, 「墨子と三墨」.

21) 예를 들면 兼愛와 非功(上)篇의 저작연대 추정, 非功(中)・(下)篇의 연대추정 등에 대해서 와타나베 교수와 논자의 입장이 다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다. 다만 와타나베 교수의 도표를 개작한 논자의 도표가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들에 입각한 것임을 밝혀두도록 한다.